

지금 거리에선

지금도 거리 곳곳에선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경건하고 엄숙한 때론 발랄하고 활기찬 그 거리를 <희망세상> 청년 인턴기자들의 눈으로 만나봅니다.

글 · 나동현 naddeng2@gmail.com/인턴기자

민주주의의 진전!

한국동물보호협회 - 개, 고양이, 식용 반대 서명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로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된 지금, (일부)동물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동물 보호론자들의 서명운동은,(동물 보호론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존엄성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11. 5. 15. 일요일 / 명동거리)



민주주의의 진전?

상가영업생존권을 박탈당한 명동3구역 상인들의 농성장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역강패의 폭력과, 법과 질서, 원칙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권력의 모습에, 이 사회가 진정 사회적 약자도 평등한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게 했다. 더군다나, 이 현장은 명동성당, 향린교회가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회가 반독재 투쟁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던 과거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했다.
(2011. 5. 15. 일요일 / 을지로 2가 인근)





지금 거리에선

글 · 권용석 e1234kr@yahoo.co.kr/인턴기자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농성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지부)는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1200일이 넘게 농성을 지속해오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자화상처럼 비춰지고 있다.

농성의 요구안은 단순하다. '조합원에 대한 해고 협박 중지', '노동조합 탄압 중지', '조합원 재산 압류 해제' 등이다. 현재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거의 모든 동산, 부동산이 압류상태이며, 조합 간부들에게는 별도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린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G20의장단 회의를 이유로 서울시 중구청은 16일 오전 농성 천막들을 철거하였다. '국격' 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정한 국격이란 국민들의 삶부터 챙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학교 분회 출범식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국민대학교 본부관 앞에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학교 분회가 출범했다. 노동부의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전날 국민대학교 총장에게도 연락을 한 상황이었지만 학교 경비 직원들은 항의하는 조합원과 학생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회가 불가하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 약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비록 조합원이 아직 1명뿐이기는 하지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학교 분회의 출범식이 열릴 수 있었다.

대학교 강사란, 4개월짜리 재계약을 계속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형태의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묵묵히 일해 왔다. 하지만 교수 직위만을 바라고 수십년을 시간강사로 생활해 온 그들은 그동안의 굴종과 침묵에서 벗어나 교육자로서 존엄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고, 학생들에게 기본 의무를 다하는 교육자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류동운 열사 추모제 사회국에서 연 제 31주기 류동운 열사 추모제. 5월 17~18일 한신대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추모국에서 나눠준 유인물에 “'왜' 라는 질문은 류동운 열사와 5·18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쓰여있었다.



사진전을 참여한 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느낀점을 적어 붙여놓았습니다.



1980년 5·18과 2011년 5·18을 비교해보는. 1980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



침묵아닌 삶으로, 제 31주기 류동운 열사 추모제_한신대학교 교정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이 역사를 위해 한줌의 재로 변합니다. 이름 없는 강물에 띄어주소.”

1980년 5월, 당시 한신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류동운 열사의 마지막 일기에 적혀있던 문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나갔던 류동운 열사는 27일 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생을 마감했다.

내가 다니는 한신대학교에는 류동운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분들이 더 계시다. 매년 주기가 돌아올 때면 학교 곳곳에는 추모하는 문구들이 가득하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때에 접하는 추모문구들은 학생들이 다시금 그 당시를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며, 용기를 준다. 최근 등록금 투쟁으로 학교 전체가 떠들썩하다. 그 가운데 류동운 열사의 추모사진전은 1980년이 아니라 2011년에 일어났다고 해도 믿겨질 만큼 마음에 닿았다.

이번 추모제는 5·18과 용산참사를 연결지어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열었다. 1980년 5월 18일과 2011년 5월 18일의 차이점이 뭘까?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법에 명시돼 있듯이 간단했다. 겨울을 보내고 나서 철거를 시작하고,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처참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민주주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